

영암군, 지역쌀 사주기 각계각층 참여 큰 성과 이뤄

쌀값 폭락 농민 어려움, 군민 쌀 사주기 참여

영암군(군수 우승희)에서는 농협 쌀조합공동법인과 함께 쌀값 폭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범군민이 참여하는 영암쌀 사주기 및 소비 운동을 지난달 2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작년 수확 철 이후 쌀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45년 만에 쌀값의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고 쌀 재고량이 크게 증가해 올해 신곡 가격 불안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영암군 대표 브랜드 '달마지 쌀(골드)' 특별할인 행사와 더불어 영암쌀 사주기 운동에 군민·향우·기관단체·기업체가 참여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추진된 영암쌀 사주기 운동은 영암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 1포 사주기 운동을 시작으로 범군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에 따라 영암군의회와 각급 기관단체·영암

군체육회·가맹경기단체, 영암군민속씨름단을 비롯해 군민들도 지역 쌀 사주기 운동에 참여해 큰 힘이 돼주고 있다.

특히, 우승희 군수를 비롯해 군산하 공직자가 달마지쌀 750포,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 100포, 영암군체육회(회장 이봉영)와 가맹경기단체 900포, 그리고 영암군민속씨름단(감독 김기태)에서 300포 구매해 영암쌀 소비촉진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한편, 농산물 직거래행사가 서울 광장에서 9월 5일부터 7일까지 펼쳐져 영암군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배·메론·무화과·대봉감 말랭이를 선보일 계획이며, 수도권 소비자를 겨냥한 영암쌀 고정 고객 확보를 위해 홍보용 샘플쌀을 이용해 우리쌀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에서는 농협쌀조합공동법인과 함께 쌀값 폭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범군민이 참여하는 영암쌀 사주기 및 소비 운동을 지난달 2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무안군, 도로 물 뿌리기 실시

무안군(군수 김산)은 무더위를 식히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여름철 도로 물 뿌리기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민간 살수차량 4대를 활용해 무안읍(1대), 남악신도시(2대), 오룡지구(1대) 일대 총 연장 24km 구간에 하루 3회에 걸쳐 작업을 실시 중이다.

또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9월 말까지 폭염특보 발령 시 오전 시간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시간에 물뿌리기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더위 쉼터, 독거노인, 야외활동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자율방재단과 읍면 단위 밀착형 예찰활동을 통해 폭염예방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상반기에 스마트그늘막 10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께서도 폭염 시 국민 행동요령을 숙지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별 무더위 쉼터 300여곳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민재 기자

목포, 코로나 재유행 대비 대응체계 구축

목포시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감염취약시설의 PCR 검사 강화와 격리병상 추가 확보 등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목포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7월 첫째주 1일 평균 42명에서 둘째주 86명, 셋째주 196명, 넷째주 302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8월에도 400명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방역 당국은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에 따른 신종 변이 유입 위험성 증가와 방역 조치 완화, 여름 휴가철 유동 인구 증가, 예방접종 경과에 따른 면역 효과 감소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재유행에 대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85개소 종사자 2천200명에 대한 주 1회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시설 내 확진자를 신속 치료해 중증화 예방과 집단감염 예방의 효과를 내

고 있다. 이와 함께 입소자에 대해서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하고 외출은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예방접종 미완료자 및 50대 이상 4차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독려하고 고위험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방문 접종을 실시해 접종률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병상 마련에도 주력해 코로나 자율입원병원을 7개소 130병상을 확보했다. 자율입원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건소의 배정을 통하지 않고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해 입원해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처방, 진료 등을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의료기관 46개소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검사와 치료, 처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박성태 기자

신안 분계해수욕장, 전남 8월 추천관광지

신안군은 전남도가 안전하게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추천 여행지 3곳 중 자은도 분계해수욕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에 안전한 관광지가 각광 받는 만큼, 분계해수욕장의 깨끗한 모래사장과 해안을 따라 펼쳐진 울창한 여인송 숲의 나무향은 지친 몸과 마음을 휴식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해수욕장 주변에는 어른 팔로 감싸기 어려울 정도로 굵은 소나무 군락중 여인송은 연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준다는 전설을 간직해 가족단위 여행객들 뿐만 아니라 데이트 장소와 피서지로도 인기가 높다.

또한, 분계해수욕장 주변으로 해변을 걷 전국 유일의 자연휴양림, 수석미술관, 세계 조개박물관이 있

는 1004뮤지엄파크와 함께 거대한 풍차 같은 풍력발전단지가 넓게 펼쳐진 해변은 이국적인 풍광으로 관광객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며, 인근에 최근 새로 개장한 씨월드 리조트&라마다프라자호텔은 전남 최대 규모의 연회장도 비롯해 워터파크, 사우나, 레스토랑, 키즈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름철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장흥근 기자

함평, 평생학습 수강생 모집

함평군이 19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 강좌는 ▲칼리바 2급 ▲글쓰기 ▲원에심리지도사 ▲캘리그래피 ▲라탄공예 ▲아로마상담사3급 등 10개 과정이다.

모집 인원은 각 강좌 당 15명 이내로 총 120명 규모이다.

강사료는 함평군에서 지원하며 재료비 등은 수강생이 별도 부담한다.

강좌는 9월부터 11월까지 함평군 평생학습관, 축제엑스포사업소에서 운영된다.

신청은 함평군 홈페이지(<http://www.hampyeong.go.kr>)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 교육협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문수 기자

강진군, 원스톱 코로나19 진료기관 운영

강진군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검사·처방·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관내 원스톱 진료기관은 호흡기 환자 진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비대면 진료가 한 번에 가능한 의료기

관으로 강진의료원, 연세의원, 오케이내과의원, 우리들내과의원, 아나파의원, 성모의원 등 6개소이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60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자의 경우 사전 예약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박종욱 기자

특히,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 60세 이상 확진자 대상의 중증화 위험도를 63%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됐다.

차은수 방역정책과장은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원스톱 진료기관을 이용해 신속하게 진단 및 치료를 받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욱 기자

가고싶은 여름도시 장성호 수변길

영암군관광국

수변 데크길(왼쪽)

황금빛솔밭데크

수변 데크길(오른쪽)

장성군 Jangseong